

“자투리 시간에 돈 번다”… 쇼핑·게임 등 진화하는 앱테크

샵백플레이, 간단 미션으로 캐시백
호텔스닷컴과 숙박권 이벤트 진행
칩스, 모바일 쿠폰 거래기능 도입
바이보너스, 증권사·거래소 혜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출퇴근,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미션을 수행하면 주머니에 돈이 쌓인다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는 시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에 ‘앱테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돈을 버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앱테크쪽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발한 방법과 이벤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거에는 걸음 수를 충족하면 포인트나 상품권을 주는 ‘만보기 앱’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취향에 맞는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쇼핑 경유 플랫폼부터 모바일 앱의 다채로운 이벤



샵백코리아가 지난달 26일 간단한 미션을 완료하면 캐시백을 제공하는 ‘샵백플레이’를 론칭했다. /샵백코리아

트까지 점차 진화하는 앱테크 비법을 공개한다.

◆간단한 미션 완료시 현금 캐시백 주는 ‘샵백플레이’ 론칭

7일 업계에 따르면 쇼핑 경유 플랫폼 샵백코리아는 게임, 쇼핑, 클릭 등의 미션 완료 시 현금 캐시백을 지급하는 새로운 게임형 캐시백 서비스 ‘샵백플레이’를 론칭했다.

유저들은 샵백코리아 앱에서 ‘샵백플레이’에 접속 후 게임에 특화된 ‘레드 존’과 게임·쇼핑·클릭·SNS 구독 등으

로 참여할 수 있는 ‘블루 존’ 두 곳에서 캐시백을 적립하면 된다.

‘레드 존’에서는 솔리테어 오션, 도미노 드림스, 트레블 타운 등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 참가 가능하며, ‘블루 존’에서는 간단한 게임 미션, 회원가입, 쇼핑, SNS 구독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하루 5분, 출퇴근과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 캐시백을 지급하며, 5000원 이상 승인 완료 시 현금 계좌나 네이버페이로 환급이 가능하다.

또 샵백코리아는 이달 말까지 호텔스닷컴과 함께 ‘인기여행지 호텔 숙박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샵백 앱에서 ‘챌린지 시작하기’를 누른 후, 샵백을 경유해 호텔스닷컴에서 총 60만원 이상을 결제하고 내달 30일까지 투숙하면 사이판, 괌, 다낭 등 인기 여행지 호텔 숙박 응모권이 발급되며,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무료 호텔 바우처가 제공된다. 응모권은 구매 금액에 대한 캐시백이 적립돼 승인 대기 상태가 되면 자동 발급된다.

◆엔비티 - 앱테크 서비스 ‘칩스’에 모바일 쿠폰 거래 기능 도입

포인트 플랫폼 운영 기업 엔비티는 앱테크 서비스 ‘칩스’에 모바일 쿠폰(기프트콘) 거래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칩스 이용자는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교환처가 제한적인 모바일 쿠폰을 간편하게 판매할 수 있으며, 정산금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지급된다.

엔비티 관계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별도의 대화나 흥정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며 “사용자 편의성과 거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앱테크 플랫폼 바이보너스 - 증권사·가상화폐 거래소 이벤트 정보 제공

최근 앱테크 플랫폼 바이보너스는 증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벤트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규 오픈했다. 지난달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 바이보너스는 사용자들이 기업에서 진행 중인 각종 보너스 혜택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가입 후 8만원, 키움증권 가입 시 4만원, 미래에셋증권 4만원 등 국내 증권사들의 주요 혜택들을 확인 가능하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회원가입 후 7만원을 지급해주는 이벤트를 알려주거나 바이비트, 비트겟, MEXC 등 해외 거래소의 신규 가입 이벤트도 소개해준다.

바이보너스 관계자는 “보너스를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타 플랫폼의 이벤트 정보를 큐레이션해 전달하는 것이다”며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각 증권사나 거래소의 공식 채널에서 직접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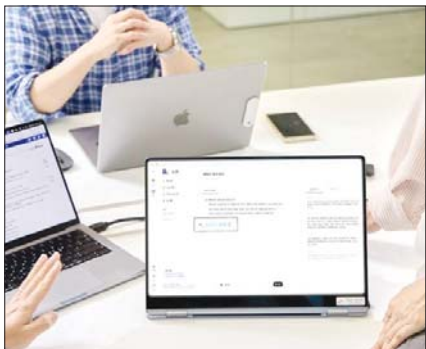
SKT 에이닷, 일주일만에 사용자 30만명 돌파

다양한 상황 음성 AI 실시간 기록
사용 목적 맞춰 핵심 내용 정리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A.)’에 베타 버전으로 탑재한 노트 서비스의 누적 사용자가 출시 일주일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지난달 30일 선보인 에이닷 노트는 음성으로 이뤄지는 모든 순간을 AI로 기록하는 서비스로, AI가 다양한 상황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받아 쓰고 요약한다.

녹음이 종료된 후 이용자가 ▲요점 정리 ▲회의록 ▲강의 노트 중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AI가 사용 목적에



SK텔레콤이 AI 서비스 에이닷에 탑재한 노트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SK텔레콤

맞춰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에이닷 노트는 실시간으로 음성 정보를 문자로 변환해서 사용자가 녹음 중 중간중간 화면을 통해 기록되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시간마다 내

용을 요약해주는 기능인 ‘실시간 요약’을 통해 회의 중 놓친 내용을 다시 찾는 것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출시 후 일주일간의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노트 서비스의 주요 사용 시간대는 오전 10~11시와 오후 3~5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노트 서비스의 사용 비중은 iOS·안드로이드 등 앱 환경이 80%, PC 웹 환경이 20%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이 많았다.

SK텔레콤은 ▲템플릿 다양화 ▲외국어 지원 확대 ▲녹음 시간 확대 등이 이용자들이 요청한 기능을 올 하반기 정식 버전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T, 한달간 AI 스팸차단 건수 150% 늘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KT는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스팸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당일 스팸 차단 건수가 150%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스팸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등록해 차단하는 시스템을 지난달 1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키워드를 찾고

등록하는 데 하루 이상이 걸렸으나, 이번 AI 기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록 소요 시간을 실시간 수준으로 단축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스팸 키워드 등록이 가능해져 24시간 대응 체계가 구축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KT가 이 시스템을 약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당일 스팸 차단 건수가 15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I가 등록한 키워드는 전체의 5.5%에 불과했지만 이로 인한 차단 비중은 45.9%에 달했다. /김현정 기자

SK AX, SHE AI로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안전·보건·환경〉

내일 ‘산업안전보건 전문 세미나’ 참가

SK AX가 오는 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산업안전보건 전문 세미나’에 참가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현장 안전·보건·환경(SHE) 혁신 방안을 공유한다고 7일 밝혔다.

7월 산업안전의 달을 기념해 마련된 부대행사에서 SK AX는 ‘SHE AI 예측형 플랫폼,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바꾼다’를 주제로 개별 세미나를 열고,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SHE 혁신 사례와 기술 적용 방안을 공개한다.

SK AX는 세미나를 통해 현장 안전과 성과 개선을 동시에 고민하는 SHE 담당자와 ESG, 안전 부서 관계자들이 직접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발표는 SK AX 애커튼파트너스 이강돈 SHE DX담당이 맡아 AI 자율

비행 드론, AI 협동로봇 시스템, AI 작업위험성평가 등 산업 현장에 도입된 실제 사례를 통해 SHE 업무가 어떻게 AX로 혁신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AI 도입의 정량적 효과와 기술 외 조직·운영 측면의 쟁점을 짚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실무 중심 AX 관점으로 풀어낸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SK AX 이정훈 SHE플랫폼개발팀장이 AI 기반 SHE 업무 플랫폼, ‘아이팩츠SHE’를 소개한다. 이 플랫폼은 안전작업 허가, 사고관리, 공정안전관리(PSM), 화학물질 및 환경관리 등 제조 현장 SHE 업무 전반에 AI를 접목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현장에서 판단·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특히 복잡한 규제 대응과 실시간 위험 감지, 정확한 데이터 기반 보고 체계를 통합 구현해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 체감 가능한 제조 SHE AX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현정 기자

LG U+, AI 통해 데이터센터 냉방효율 고도화

LG전자-LG CNS와 ‘맞손’

LG유플러스는 LG전자, LG CNS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센터 냉방 효율화 기술(DCIM) 실증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고도화된 관리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LG유플러스는 “AI를 통해 냉방 설비를 지능적으로 제어하고, 가상 환경에서 운영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냉각 에너지 소비를 최대 10%까지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우진 LG전자 오픈 이노베이션 TF 담당, 박완규 LG전자 칠러사업담당, 정숙경 LG유플러스 A IDC사업담당, 오중수 LG CNS 스마트시티서비스사업담당(왼쪽부터)이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LG유플러스

실증은 LG유플러스의 평촌2센터에서 이뤄지며, 냉동기와 컴퓨터룸 공조기(CRAC) 등 주요 설비에 AI 제어 알고리즘과 디지털 트윈 모델이 적용된다.

LG전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CRA C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평촌2센

터 설비에 도입해 최적의 운전 조건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LG CNS는 데이터센터 환경을 정밀하게 모사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AI 모델을 설계하고, 향후 다양한 센터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김현정 기자